

중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수목록 구축에 관한 소고*

한희창** · 이소현***

【목 차】

1. 들어가는 글
2. 문화교육에 관하여
3. 국내 중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 현황 탐색
4. 입문과정 중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수목록 설계
5. 나오는 글

【초록】

제 2언어 학습에서 언어에 대한 이해는 상당부분 문화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고 있으며,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도 한다. 현재 언어문화 통합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많은 중국어교사들이 어학강좌에서의 적절한 문화교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현실은 어학강좌에서의 문화교육이 전적으로 교사의 의지와 역량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학강좌에서의 문화교수영역에 대하여 논의하는 한편 국내 5대 주요 출판사의 대표교재를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수록되어있거나 간접적으로 소개 가능성이 있는 문화요소를 탐색하여 총 80개 항목을 정리하였고, 이 중 현대 중국인의 일상생활 또는 의사소통과 관련이 있는 73개 항목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 73개 항목을 대상으로 ‘문화간 차이점 유무’와 ‘의사소통 장애 발생성’을 기준으로 학습 필요성에 대해 탐색하여 총 55개의 학습목록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중국어 교육, 중국 문화 교육, 일상 생활 문화, 의사소통 문화, 의사소통 장애

* 이 논문은 2017년 한양대학교(ERICA)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HY-201700000003266)

** 한희창, 한양대학교(ERICA) 중국학과 부교수 (lizi2002@naver.com)

*** 이소현,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강사 (zhenniao@naver.com)

1. 들어가는 글

언어와 문화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제2언어 학습에서 언어에 대한 이해는 상당부분 문화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고 있기에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도 한다.

언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유방식이나 생활양식을 포함하며 공동체 안에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생각과 행동을 두루 보여주는 문화의 보고이고 총화이다. 문화는 또한 언어의 상위 개념으로서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일정한 환경 안에서 언어를 습득하며 이러한 환경은 각자 나름의 독특한 문화적 특징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사람이 습득하는 언어는 바로 그가 살고 있는 사회집단과 환경의 문화에 의해서 결정된다.¹⁾

박경자·장복명(2011)은 제2언어 능력이 언어학적 능력, 의사소통 능력, 문화적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세 가지 능력은 모두 상호 연관되어 있어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제2언어학습에 있어서 제2언어교사는 첫 시간부터 문화적 지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

한편 송지현(2017)³⁾은 중국어교육과 관련하여 ‘중국어를 가르치고 배우면서 중국 문화에 대한 교육과 학습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올바른 중국어 교육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임재민(2017)은 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과 교육과정에서 내용체계를 언어영역과 문화영역으로 구분하여 교과서의 언어기능영역과 문화영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으나, 언어문화의 통합교육은 교사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 구조적 모순에 대해 지적한 한바 있는데,⁴⁾ 이는 고등학교 중국어교육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어학강좌에서 어학적 목표는 비교적 명확히 설정하여 정해진 바의 어학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진행되지만, 문화적 요소에 대해서는 임재민(2017)의 지적처럼 교육적 체계가 부재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어떤 문화요소는 언어의 활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도 하고, 기본적인 의사소통과 교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또 어떤 표현들은 문화적 배경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면 해당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장애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문화관련 강좌를 별도로 수강하지 않더라도 어학강좌 내에서 분명 일정부분의 문화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는 교사의 개인적인 흥미나 지식에만 의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중국어교육에 있어 문화교육을 다룬 연구는 이재승(1994)⁵⁾의 호칭사용에 관한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⁶⁾

1) 문정혜,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제고를 위한 중국문화교육—考—」, 『중국과 중국학』, 제30호, 2017, p.133-134.

2) 박경자·장복명, 『언어교수학』, 박영사, 2011, p32, p40 참조.

3) 송지현, 「중국어 문화소통능력 제고를 위한 제언 - 호칭과 인사법을 중심으로」, 『中國學』, 제60집, 2017.

4) 임재민, 「언어와 문화 통합교육에 대한 예비 중국어 교사의 인식 연구」, 『중국언어연구』, 제68집, 2017.

5) 李載勝, 「現代漢語 속의 呼稱使用에 관한 小考」, 『중국어문론집』, 제9집, 1994.

6) 최금실·오현주, 「한중 수교 20년간의 국내 중국어 문화교육 연구동향」, 『언어학연구』, Vol.18 No.2, 2013.

오길용(2002)⁷⁾은 대학의 교양 외국어가 급변하는 국제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당 외국어를 익히는 수준으로의 교육이 아닌 세계를 보다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안목을 기르기 위한 문화교육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 한바 있다. 그런데 15년 후 발표된 임재민(2017)의 연구에서도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듯이 문화교육은 여전히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교사 개개인의 의지와 능력에만 의존하여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연구자나 교사들이 어학교육에 있어서 문화적 요소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는 공감하고 있음에도 무엇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그 구체적인 교수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교사들은 저마다 각자의 의지와 능력에 의존하여 나름의 방식으로 문화를 전달하고 있다.

중국어의 학습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는 현시점에서 어학교육 내에 문화교육을 녹여내는 일 역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때문에 우리는 중국문화교수목록을 구축하여 교육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학 강좌에서의 중국문화교수목록 설계’에 관해 논의하고자 하며, 그 첫 단계로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영역을 탐색하여 어학강좌의 문화교육이 포함해야 하는 문화의 범주를 탐색하고자 하며, 다음 단계로는 현재 단계별 종합 중국어 교재의 기초과정 교재를 탐색하여 교재 안에 어떤 문화적 교수내용이 수록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해당 교재들의 본문을 탐색하여 기초단계에서 소개 가능한 문화 정보 및 소개가 필요한 문화정보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입문과정 중국어 교육에서의 문화교수목록을 논의하고자 한다.

2. 문화교육에 관하여

국내 대학에서는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는 강좌를 통해 중국문화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이들 수업은 중국문화를 소개하는 특정 도서를 교재로 채택하기도 하고, 교사가 직접 자료를 만들어 진행하기도 한다. 중국문화교육과 관련한 교수목록은 사실 어학수업에서의 문화교육 뿐 아니라 중국문화교육 자체에서도 요구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학습자들이 중국의 문화와 관련하여 무엇을 학습해야 하는지 교육지침이 없기 때문에 중국문화에 대한 수업에서도 교수하는 내용은 천차만별이다. 중국문화를 소개하는 도서는 문화의 한 특정 영역(식문화, 복식 등)만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영역에 대한 제한 없이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저서도 있으며, 분량 면에 있어 있어서도 비교적 적은 내용을 담고 있는 얇은 책자부터 매우 방대한 분량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두꺼운 도서까지 다양하다.

7) 오길용, 「중국어교육과 문화교육의 병행에 대한 연구 - 대학 교양중국어를 중심으로」, 『중국어언어연구』, 제15집, 2002, p.462.

본 연구는 먼저 문화교육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문화교육 교재로 선택하기에 적합한, 즉 문화전반을 다루고 있으면서 적절한 분량으로 이루어진 저서를 선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고, 이에 많은 저서 중 H대학 ‘중국문화의 이해’ 강좌에서 제시한 참고 도서 다섯 권을 살펴보았으며, 이들 저서에 대해 본고에서는 편의상 ‘교재’라 표현하고자 한다.

제시된 교재는 『중국 중국인 그리고 중국문화』, 『중국문화의 즐거움』, 『중국문화오디세이』, 『쉽게 이해하는 중국문화』, 『사진으로 보는 중국문화』⁸⁾ 이상 5권이다.

이 5권의 교재에 실린 중국문화관련 내용을 살펴본 결과, 앞서 어학강좌에서의 문화교육이 교사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는데, 각 교재는 저마다 소개하고 있는 문화관련 항목에 차이가 있었고, 중점을 두고 있는 항목들도 각기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5권의 책에서 모두 소개하고 있는 항목은 중국의 문자, 음식문화, 차, 명절 기념일, 결혼과 장례 등 5개 항목에 불과했으며, 4권의 교재가 공통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행정 구역, 민족, 언어, 회화 등 4개 항목이었고, 3권의 교재가 공통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항목은 중국의 정치형태, 지리 지형, 술 문화, 중국의 사상, 경극, 영화, 건축, 4대 발명, 현대과학기술, 문학 등 10개 항목이었다.

각 교재들은 중점을 두는 문화영역에 차이가 있었고 소개하고 있는 문화내용범주도 저마다 큰 차이가 있었는데, 『중국문화 오디세이』는 중국의 언어와 일상생활 그리고 예술 문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반면, 『사진으로 보는 중국문화』는 중국의 정치 경제와 현대사에 대한 소개에 대단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중국 중국인 그리고 중국문화』와 『쉽게 이해하는 중국문화』는 중국의 사상과 고대로부터 근 현대에 이르는 역사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실제로 본 연구자도 중국문화를 소개하는 강좌를 진행할 때 중국문화의 범위가 너무나 방대하고 무엇을 가르쳐야할 것인지 테마를 정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었으며, 필자의 견해와 일치하는 교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 직접 교수내용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를 논하려면 여기서 말하는 문화가 어떠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먼저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화란 그 포괄하는 범위가 넓어서 명확히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언어교육의 관점에서의 문화교육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범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어떤 국가의 이모저모를 언급할 때 종종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지리 등등의 영역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접하곤 하는데, 마치 정치, 경제, 사회, 역사, 지리와 문화가 서로 다른 영역인 것처럼 느껴진다. 이처럼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자주 언급하게 되는 ‘문화’는 문학, 예술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는 ‘문화’에 대해 ‘한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8) 공상철 외 4인, 『중국 중국인 그리고 중국문화』, 다락원, 2001.

중국문화연구회, 『중국문화의 즐거움』, 차이나하우스, 2006.

강운옥, 『중국문화 오디세이』, 차이나하우스, 2009.

김태만 외 3인, 『쉽게 이해하는 중국문화』, 다락원, 2011.

김상균·신동윤, 『사진으로 보는 중국문화』, 동양북스, 2017.

변화시켜온 물질적·정신적 과정의 산물⁹⁾로 정의하였는데, 자연 상태의 사물에 인간의 작용을 가하여 그것을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창조해 낸 것을 문화라 지칭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가장 넓은 의미의 문화에 대한 정의는 자연에 대립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즉, 자연 경관이나 지리적 특징, 기후 등은 그 자체를 문화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에 인위적인 작용이 가해지거나 자연적 특징으로 인해 소속 구성원들의 일상생활에 특정 습관이나 패턴 등을 양산하게 된다면 이 역시도 해당 집단의 문화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문화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워낙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왔는데, 이봉지(2001)는 ‘이것이 실제로 교사들이 문화의 어떤 점을 가르쳐야 할지, 적합한 문화교육의 내용과 자료를 고를 수 있는 원칙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세기 후반 영어교육과 프랑스 교육에서는 언어 문화 통합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언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여 교수지침을 수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이시기에는 언어교육에서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이라는 개념이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외국어교육에서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을 지향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에 영어교육에서는 문화에 대한 정의가 일상생활의 문화(hearthstone culture)까지 포함하는 인류학적 개념으로 그 내용과 목적이 확장되어 언어교육에서 문화간 의사소통에 필요한 내용을 교수하도록 하였다. ¹⁰⁾

프랑스어의 경우 역시 비슷한 시기에 문화 교육에 관한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외국어 교육에서 의사소통능력이 강조되면서 문화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Galisson(1987)은 문화교육의 기본 지침이라 할 수 있는 “기본 행위 문화(culture comportementale fondamentale)”를 만들어 외국인이 프랑스인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일상 문화에 대한 이해를 고급문화보다 더 중요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¹¹⁾

중국어 교육에서 역시 20세기 후반 문화교육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는데, 张占一(1984)¹²⁾은 언어교육의 관점에서 문화를 지식으로서의 문화와 교제를 위한 문화로 나누어 소개한바 있다. 여기서 ‘지식문화’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상호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떤 단어나 문장에 대해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화요소를 의미하며, ‘교제문화’란 어떤 단어나 문장의 문화적 배경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오해가 생길 수 있을 만큼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화요소를 의미한다. 여기서 ‘교제문화’나 ‘일상생활문화’, ‘기본행위문화’ 등이 포함하고 있는 문화정보는 해당 집단 구성원들의 사유와 행동양식, 생활패턴 등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모든 정보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조미연(2007)은 “중국어 배우는 학습자가 중국의 역사와 지리 등과 같은 지식문화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중국인과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하는데 오

9) 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정신문화연구원, 1991.

10) 백경숙, 「한국의 대학 영어교육과의 문화 관련 교과목 분석을 통한 제언」, 『사회언어학』, 20(2), 2012, pp.241-243 참조.

11) 이봉지, 「멀티미디어를 사용한 목표 문화 교육」, 『Foreign Languages Education』, 8(1), 2001, pp.359-374 참조.

12) 张占一, 「汉语个别教学及其教材」, 『语言教学与研究』, 第3期, 1984, pp.63-64.

해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지만, 만약에 중국인의 생활방식이나 습관과 관련된 교제문화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거나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고 본다.”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필자 역시 이 같은 주장에 공감하는 바이다.

문화교육 교수목록 구축을 논하자면, 문화교육 전문 강좌에서의 목록과 어학강좌에서의 목록에 차이가 있을 것인데, 영미문화교육이나 프랑스 문화교육 강좌가 언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을 병행하다가 나중에 독립적인 강좌로 발전해 나갔음을 볼 때 중국문화에 대한 교육 역시 언어교육의 관점에서 중국어 교육에 있어 요구되어지는 일상생활 문화를 탐색하여 일상생활 문화교수목록을 구축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3. 국내 중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 현황 탐색

일상생활문화 교수목록 탐색을 위해 본 장에서는 국내 중국어 교육에서의 문화교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현재 중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중국문화교육은 교사 개개인에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제각각이고, 심지어 동일인이어도 매회 교수 내용이 달라지기도 해서 이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교재를 통해 문화교수현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실제 수업에서 설명되어지는 내용은 제 각각이겠지만 교재에 실려 있는 내용은 동일하게 학습자들에게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교사가 해당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습자가 해당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중국어 입문과정교육에서의 어떤 방식으로 어떤 중국문화를 소개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관련하여 국내 5대 중국어 전문 출판사를 대상으로 각 출판사에서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종합형 교재들로서 언어의 특정 기능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서 단계별 시리즈로 구성된 교재 9종을 선택하여 각 입문과정 편을 살펴보았다. 선별된 교재는 넥서스CHINESE의 『중국어교실』, 다락원의 『신공략 중국어』, 『중국어마스터』, 시사중국어사의 『완성중국어』, 『한어구어345』, 중국어뱅크의 『스마트 중국어』와 『한어구어』 그리고 JRC북스의 『맛있는 중국어』와 『참 쉬운 중국어』¹³⁾가 그 대상이다.

<표1> 분석대상 교재

	교재명	저자	출판사	발행연도	비고
①	중국어교실 상	한민이	넥서스CHINESE	2007	
②	중국어마스터 1	박정구·백은희	다락원	2008	
③	신 공략 중국어 기초	马箭飞 외 2인	다락원	2000	편역
④	완성중국어 1	김준한·왕혜경	시사중국어사	2012	
⑤	한어구어345句 1	陳賢純	시사중국어사	2011	편저

13) 5개 중국어 전문출판사 중 4개 출판사의 교재는 각 2 종씩 선별하였으나 넥서스CHINESE의 경우 대부분 특정대상 또는 특정 영역에 대한 교재들이 주를 이루었고, 본 연구에 부합되는 기본서 시리즈로는 『중국어 교실』만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교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⑥	스마트중국어 1	김현철, 김은희	중국어뱅크	2010
⑦	한어구어 상	戴桂芙 외 2인	중국어뱅크	2013(개정) 편역
⑧	맛있는 중국어 1	JRC중국어연구소	JRC박스	2012
⑨	참 쉬운중국어 1	JRC중국어연구소	JRC박스	2015

이 중 ③, ⑤, ⑦번 교재는 중국에서 간행된 교재를 편역 또는 편저한 것이고, ①, ②, ④, ⑥, ⑧, ⑨번 교재는 국내에서 집필한 교재이다.

어학교재에서 문화를 소개하는 형태는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첫째 별도의 코너를 설정하고 주어진 테마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방식, 둘째 본문이나 기타 문법이나 표현을 설명할 때 관련된 문화요소를 해당 지면에 설명으로 추가하는 방식, 셋째 본문 자체를 문화 요소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방식 등이 있다. 입문 과정의 교재에서는 대체로 앞의 두 가지 방식이 주를 이루고 세 번째 방식은 중급이상의 교재에서 볼 수 있는 방식이다.

9종 교재 중 ④, ⑤, ⑦을 제외한 6종의 교재는 모두 각각 ‘문화탐방’을 표방한 별도의 지면을 마련하고 있는데, ②는 ‘사진으로 보는 중국’이라는 제목으로 지면을 할애해 문화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고, ③은 ‘중국문화 엿보기’ ⑥은 ‘break time’ ⑧은 ‘느끼자 중국문화’ ⑨는 ‘중국문화 사진으로 만나기’라는 제목으로 각각 중국의 문화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①은 ‘Travel in China’라는 제목의 지면을 통해 중국의 여행 명소만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상권에서는 베이징과 상하이의 여행 명소 및 볼거리, 쇼핑명소들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⑦은 중간 중간 박스를 통해 문화관련 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며, ⑨는 별도의 코너도 마련되어 있고, 중간 중간 박스를 활용한 소개도 병행하고 있다.

④와 ⑤의 경우에는 도입 부분에서 중국어에 대한 기본 정보(명칭, 표기법, 문자, 성조 등)를 제시한 것 외에 별도로 문화요소를 소개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 ⑤의 경우 중간 중간 ‘문화tip’이라는 박스를 활용하고 있으나, 여기에 소개한 내용들은 문화와 관련이 없었고, 교재 도입부 일러두기에서도 ‘문화tip’박스에서 간단한 문법을 설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각각의 교재들이 지면을 할애하여 활자로 소개한 문화정보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분석의 편의상 각 정보는 내용적 성격을 고려하여 대표성 있는 표제를 설정하여 간략히 표기하였고, 각 표제의 정보가 현대 중국인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경우 A(일상생활 문화)에 표시하였고, 의사소통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언어사용에 있어 의사소통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B(의사소통문화)에 표시하였으며, 둘 다 해당되는 경우 둘 다 표시하였다.

<표2> 각 교재에 수록된 문화정보 현황

문화정보 ¹⁴⁾	A	B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중국의 국명	○							○		○	○
중국의 지형(크기)	○				○						
중국의 행정구역	○			○	○					○	

중국 국기	○		○	○			○		○	○
중국 휘장				○						
중국인구규모				○						
중국의 인구정책	○		○							○
중국의 민족	○		○				○		○	○
지역별 중국인의 특성	○		○						○	
중국어의 특징	○		○		○	○	○		○	○
중국의 문자(간·번체)	○						○		○	○
여러 가지 인사말	○	○	○				○	○		○
중국의 성씨, 호칭	○	○	○				○	○		○
인터넷 용어	○	○	○				○			
중국 역대왕조				○						
중국의 전통명절	○		○				○			○
중국의 공휴일	○							○		
중국의 음식(4대요리)	○		○	○			○			○
중국의 먹거리	○	○						○	○	
중국 술 기원과 종류	○			○						
중국의 차	○		○	○				○		○
금기, 풍속	○	○						○		
중국의 학교/학제	○									○
중국의 입시	○							○	○	○
学院은 학원이 아님		○								○
중국의 교통	○		○						○	○
중국의 기후	○		○							
중국인의 여가활동	○							○		○
중국 TV속 자막	○									○
숫자와 의미	○		○	○			○			○
화폐종류와 모양	○		○				○			○
중국여행	○	○	○				○		○	○
중국의 교통	○		○					○	○	○
중국의 휴대폰	○									○
중국의 신세대	○									○
중국의 주거형태	○						○			

어학 교재 중에는 철저히 텍스트만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교재도 있지만(④⑤), 대체로 많은 교재들이 본문과는 별도로 지면을 마련하여 중국문화에 대해 소개하고자하는 노

- 14) 내용 중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문화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정보들도 다수 소개 되고 있는데, 사회학적, 인류학적 관점에서는 문화의 개념으로 접근해 본다면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는 모든 것, 즉 ‘사회’라는 그릇에 담겨 있는 내용물 전체를 문화로 볼 수 있기에, 중국 사회의 모든 면면이 다 중국문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천차만별이어서 모든 교재들이 공통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문화요소는 찾을 수 없었고, 그나마 넓은 의미에서의 중국 음식 소개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¹⁵⁾, 이는 앞서 중국문화를 소개하는 교재에서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들 교재에서 지면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은 마치 뭔가 중요한 문화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보다는 각 교재마다 다분히 저자의 개인적 선택이 반영되었다고 여겨졌는데, 임재민(2017)이 지적한 교실수업에서의 문제점이 교재편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살펴본 바에 따르면 별도의 코너를 통해 소개되는 내용들은 대부분 알아 둘 필요가 있거나 또는 알아두면 유용하다고 판단되거나, 학습자들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어 본문과의 관련성이 매우 낮다.¹⁶⁾

그런데 이처럼 어학교재에서의 문화정보란에 소개되는 내용들이 어학학습과의 맥락이 결여되거나 혹은 의사소통과 관련이 없거나 적다보니 어학교실에서 문화정보의 교수는 다분히 흥미유발 수단 정도로만 인식되기 쉽고, 때문에 어학강좌에서 문화교육이 ‘하면 좋고 안 해도 무방한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

별도의 코너를 통해 소개하는 문화정보와는 달리 ⑦, ⑨에서처럼 본문이나 기타 설명이 진행되는 페이지에 박스 형태로 추가되는 문화정보는 대체로 해당부분의 어학정보와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주로 언어적 표현과 관련이 있거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들이 소개되고 있다.

한편 동일한 문화범주라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일상생활 및 언어와 관련된 문화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차(茶) 문화의 경우, 차의 기원 및 역사 등은 일상생활문화나 의사소통문화로 보기 어려우나 일상생활 속에서 차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즉, 중국인들이 차를 마시기 위한 통을 가지고 다니며, 어디서나 끓는 물을 제공받을 수 있고, 차를 제공하는 곳이 많다는 등의 내용은 일상생활 문화에 속하고, 찻집에서 차를 주문하는 방법이나 어떤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는지 등은 의사소통문화에 해당한다.

정유선(2009)¹⁷⁾은 중국어 교재에서 문화를 소개하는 형태와 관련해서 직접형태와 간접형태를 소개한 바 있는데, 별도의 코너 또는 박스를 통해 직접적으로 지면을 할애하고 활자화하여 문화적 요소를 소개하는 경우를 직접형태로, 본문의 내용이 문화적 내용을 담고 있거나 출현한 어휘나 표현을 통해 문화적 요소가 언급되는 경우를 간접형태의 문화소개라고 주장하였다.

즉 본문에 “我没有兄弟姐妹”라는 문장이 나왔을 경우 이것이 중국문화를 간접적으로 말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어학강좌에서의 중국문화교육에 있어 우리는 이 간접형태의 중국문화 소개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중국어 교재에 등장하는 문장과 어휘들을 통해 엿볼 수 있는 중국문화가 적지 않으며, 이들 문화 정보는 일상생활과 밀접하거나 의사소통과 관련이 있

15)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역시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6) 분석 결과 교재 ⑥만이 문화코너의 내용 구성에 본문과의 연관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문화정보 코너가 모든 단원에 배치되지 않고 불규칙하게 등장하고 있다.

17) 정유선, 「문화교육의 관점에서 본 고등학교 중국어 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비교문화연구』, 제13권 제2호, 2009, p.384.

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일상생활 문화나 의사소통 문화의 내용들은 사회가 변화발전함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되기 때문에 활자화된 소개에 의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입문과정 교재들의 본문 구성은 문화정보 소개와는 달리 사용된 어휘나 표현이 대체로 비슷하다. 때문에 본문 내용과 활용된 어휘들을 고려하여 어떤 문화정보가 제공가능한지 교수 목록을 구축하여 교사에게 제공된다면, 비록 어학강좌에서의 문화요소 소개가 전적으로 교사의 판단과 선택에 의존해야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교사의 선택과 판단에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어학강좌에서의 문화교육이 보다 더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여러 교재들에서 이미 소개된 문화정보를 살펴보고 이들 중 교수가 필요한 항목을 추출할 예정이며, 더불어 본문에 등장한 표현과 어휘를 바탕으로 각 단원에서 소개 가능한 문화정보를 정리하여 입문과정 중국어강좌에서의 문화교수목록 초안을 구축해 보고자 한다.

4. 입문과정 중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수목록 설계

중국 공자학원총부(孔子學院總部)와 국가한반(國家漢辦)에서 편집한 국제중국어통용교육과정요강(國際漢語教學通用課程大綱)에서는 ‘언어의 종합적인 활용 능력을 언어지식, 언어기능, 전략, 문화능력이라는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영향관계에 있는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언어기능만을 중시하던 교육이념에 대해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 하고자 함을 언급하였고, 이를 통해 ‘글로벌 중국어 인재 배양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¹⁸⁾ 그러나 이처럼 언어기능 외 영역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었음에도 실상 언어기능 외에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요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관련하여 류기수(2014)¹⁹⁾는 해당 요강이 외국인들에게 문화의 어느 항목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요강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바 있다.

상술한 요강에서의 문화능력에 대한 교수지침을 보면 ‘중국문화와 자국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해’, ‘중국문화에 대한 흥미유발’, ‘문화 간의 상이함 인식’, ‘중국문화 속 인간교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등 다분히 개괄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교사가 이를 참고하고자 해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본 장에서는 먼저 앞서 9종 교재에서 직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문화요소를 정리한 후 본문의 전개를 고려하여 간접적으로 소개가능한 문화요소까지 함께 정리하여 총 80개의 문화교수항목으로 정리하였으며, 이 중 현대인의 일상생활 또는 의사소통과 관련된 것을 다시 선별하여 총 73개 항목을 추출한 후²⁰⁾, 이들 문화항목에 대해 그 교육적 필요성을 논의해 보고자

18) 孔子學院總部·國家漢辦, 『國際漢語教學通用課程大綱(修訂版)』,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14.

“將語言綜合運用能力分為‘語言知識’、‘語言技能’、‘策略’、‘和文化能力’四個相對獨立、相互影響、交叉滲透的板塊, 這種框架代表對語言和語言教學的新的全面理解, 對以往只針對和重視語言技能的教學理念做出了突破性地改變, 引導漢語教學逐漸重視培養學生的文化素質、溝通能力、國際視野, 以達到培養國際型漢語人才的教学目標。” p.1.

19) 류기수, 『외국어로서의 중국어교육』, 한신대학교출판부, 2014, p.244.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적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국제중국어통용교육과정요강(國際漢語教學通用課程大綱)의 문화교육지침인 ‘중국문화와 자국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며, 다른 하나는 ‘의사소통 장애 여부’이다. 상기 교재에서 이미 활자로 소개하고 있거나 본문을 통해 소개할 가능성이 있는 문화 항목 중 양국 문화 간 차이가 있는 항목들을 추출하여 의사소통 및 일상생활에 장애나 실수가 예상되어지는 정도에 따라 上, 中, 下로 등급을 부여하였다. 21)

<표3> 문화교수항목 1 부분 : 국가 지리 지형

	(1) 국가 지리 지형	A	B	등급
①	중국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이다.	○		中
②	중국의 지형(지도), 크기(한반도의 44배, 세계육지면적의 1/15)	○		中
③	중국의 행정구역: 4개 직할시, 23개 성, 5개자치구, 2개 특별행정구	○		下
④	중국의 국가: 오성홍기	○		中
⑤	중국의 날씨, 남북 기온차, 북쪽이어도 여름에는 무지 덥고, 상하이 등 지역은 겨울에 온도에 비해 난방이 안 되어서 상당히 춥다	○		上
⑥	동서로 최대 4-5시간의 시차가 있으나 전국적으로 표준시간을 사용한다.	○	○	上
⑦	지역이 넓다보니 멀고 가까운 것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 보통 4,5시간 거리면 가깝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	○	上

먼저 국가·지리·지형과 관련하여 7개의 문화정보가 직접 제공되었거나, 제공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모두 중국의 현실 생활을 반영하고 있다. 이 중 의사소통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항목으로는 ⑥, ⑦번 문항을 들 수 있는데, 중국의 영토가 넓다는 점이 그들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며, 동서 도시 간 시차가 있지만 동일 시간대를 사용함으로 인해 소통에 있어 고려할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의사소통 문화로 분류가 가능하다.

⑤는 위도상 북쪽인 지역이 여름에 시원하고 남쪽인 지역이 겨울에 따뜻할 것이라는 선입견에 반해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알아둘만한 정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①, ②, ④ 역시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요소로서 중국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라 할 수 있기에 학습자들이 알아 둘만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다만 ③은 학습자가 중국을 방문할 경우 방문지가 어디인지 알아둘 필요는 있겠지만, 중국의 행정구역 자체가 중국어 학습의 필수 정보라고 볼 수는 없다.

20) 배제된 7개의 문화요소는 지식문화영역의 내용으로서 이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학습자가 실제 중국에 가서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 이들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좋긴 하겠지만 모른다고 해도 특별히 불편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1) 교재에서 활자로 소개한 내용은 해당내용의 진위와 관계없이 목록에 포함하였고, 적합성 여부를 다시 논의하였다.

<표4> 문화교수항목 2 부분 : 인구구성 및 제도

(2) 인구구성 및 제도		A	B	등급
①	중국의 인구는 세계 최대이다.(많다)	○		中
②	중국의 민족구성: 한족+55개 소수민족	○		中
③	중국의 인구증가를 막기 위해 한자녀 정책을 실시. 벌금 등 규제 엄격.	○	○	上
④	한자녀 정책으로 인해 소항제 사생아 등의 사회문제가 있다.	○		下
⑤	외동끼리 결혼 또는 소수민족 등 사유에 따라 자녀 둘 이상 가능하기도 함	○		下
⑥	중국은 남녀가 모두 일하기 때문에 맞벌이가 기본이다.	○	○	上
⑦	직업에 있어 남녀구별이 적고 남성의 가사 육아활동이 보편적임.	○	○	上
⑧	나이를 많이 묻는 편이 아니며, 말할 때는 보통 만 나이를 말함		○	上
⑨	지역별 중국인의 특성	○		下

인구구성 및 제도와 관련해서는 9개의 문화정보가 직접 제공되었거나 제공 가능한 것으로 탐색되었고, ③, ⑥, ⑦, ⑧의 항목이 의사소통에 있어 고려할 만한 항목이라 할 수 있다. 즉, 중국에 한자녀 정책이 있기 때문에 형제관계를 물을 필요가 없거나 혹은 형제가 있는 경우라면 특수한 상황임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③)이나, 맞벌이가 기본이며 남성의 육아와 가사가 보편적이라는 점은 특정 질문이나 표현이 어느 한 성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⑥⑦)을 말해 주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있어 중요한 문화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보편적으로 만 나이를 말한다는 점(⑧)도 나이를 묻고 말함에 있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기에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③, ④, ⑤와 같은 설명은 현시점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항목에 대한 소개는 달라진 부분도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①, ②, ④, ⑤의 경우 의사소통에 있어 직접적으로 작용할 만한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①, ②는 중국에 대한 매우 두드러지는 특징이기에 알아둘만 하다고 볼 수 있으며 ④, ⑤의 경우 알아두면 좋긴 하겠지만, 학습자가 필수로 알아야 하는 요소로 보기 어렵다. 또한 ⑨의 경우 지역별 중국인의 특성을 알아두는 것이 궁극의 소통에 있어서는 유리한 요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개인차도 크고 이를 반영한 의사소통은 고급학습자에게도 쉽지 않은 요소이기에 입문과정 어학수업에서 학습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5> 문화교수항목 3 부분 : 언어 및 생활, 교육

(3) 언어 및 생활		A	B	등급
①	친한 사이에는 你好보다 밥 먹었니? 어디 가나? 등 다양한 인사말 사용.	○	○	上
②	你好와 你好吗?는 다른 의미임. 초면에 你好吗?는 X		○	上
③	중국의 문자: 간체자 번체자	○		上
④	중국어는 존대 말이 없음.		○	上
⑤	중국에서 많은 성씨는 이, 왕, 장 씨 등 임	○		下
⑥	보통 성 뒤에 직책이나 직업명을 붙여 호칭하거나 친한 사이에는 성 앞에 老나 小를 붙여 친근하게 부르기도 함.	○	○	上
⑦	외래어는 비슷한 음을 기본으로 음역, 가능한한 의미까지 고려하기도 함.	○		中
⑧	인터넷 용어	○	○	中

⑨	어린이날이나 스승의 날 등은 우리와 다름.	○	中
⑩	중국의 전통명절:除夕, 元旦, 春节, 元宵节, 端午节, 中秋节	○	中
⑪	공휴일 다름: 노동절, 단오, 청명 등은 공휴일. 석탄일, 성탄절은 공휴일 아님	○	中
⑫	중국인들의 시간관념: 만만디 (천천히 천천히)	○ ○	上
⑬	중국인들의 여가활동: 태극권, 바둑, 장기, 마작, 포크댄스 등.	○	下
⑭	중국 TV 방송은 예능이건 드라마건 모두 자막이 있음.	○	下
⑮	중국인은 /관시(关系)와 체면을 중시한다.	○ ○	上
⑯	중국인은 소통을 좋아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말거는 것을 꺼리지 않음.	○	中
⑰	중국의 신세대(80后, 90后)	○	下
⑱	중국의 학교 / 학제	○	下
⑲	중국의 입시	○	下
⑳	낮잠을 자는 문화 있음 이 시간에 전화나 방문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 ○	上

언어 및 생활과 관련해서는 총 20개의 문화정보가 직접 제공되었거나 간접적으로 제공 가능한 것으로 탐색되었는데, 그 중 ①, ②, ③, ④, ⑥, ⑫, ⑮, ⑳항이 학습필요성이 높은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①, ②, ③, ④, ⑥항은 언어적 요소로서 기본적인 인사말이나 호칭, 언어표현 및 문자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학습해야할 항목으로 볼 수 있으며, ⑫, ⑮항은 중국인의 주된 인식과 관련된 부분으로 중국인과의 소통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고, ⑳ 역시 중국인과의 교류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알아둘만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한편 ⑦, ⑧, ⑨, ⑩, ⑪, ⑯은 실생활과 관계있는 요소이니 알아두면 좋긴 하겠으나 필수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흥미를 자극할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가능하다.

그러나 ⑤, ⑬, ⑭, ⑰, ⑱의 경우 알아두면 좋긴 하겠지만 교실 수업에서 시간을 점유할 만한 학습항목이라고 보기 어렵다.

<표6> 문화교수항목 4 부분 : 쇼핑

	(4) 쇼핑	A	B	등급
①	중국의 화폐 모양 소개	○	○	上
②	인민폐 1위안은 현재 한국 돈 XX정도에 해당된다.	○		上
③	중국의 화폐가치: 인민폐 10위안으로 XX를 할 수 있다.	○		上
④	위조지폐가 사회적 문제여서 식당이나 작은 상점까지도 지폐 감별기를 통해 위폐 여부를 확인 하는 경우가 많음.	○	○	下
⑤	위조지폐가 많아서 100위안이나 50위안을 받을 때 주의 필요	○		中
⑥	龙眼, 哈密瓜, 荔枝, 冬枣, 柚子 등 중국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과일 소개. 龙眼, 荔枝는 최근 한국에도 수입되어 있음.	○		下
⑦	중국의 신발 치수: 우리처럼 mm를 쓰기도 하지만 주로 호수를 사용. 1호는 50mm.	○	○	下
⑧	중국의 전통의상으로는 탕장(唐装)이나 치파오(旗袍) 등이 있음.	○	○	下
⑨	중국의 할인 표시: 折, 8折는 8할의 가격을 받겠다는 뜻임.		○	上

쇼핑과 관련해서는 총 9개의 문화정보가 직접 제공되었거나 제공 가능한 것으로 탐색되었는데, 그중 ①, ⑤, ⑨는 실제로 쇼핑을 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자 주의를 요하는 항목이기에 학습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②, ③의 경우 실질적인 화폐가치와 가격의 비싸고 저렴함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이자 학습자들이 매우 흥미롭게 생각하는 정보이기에 교수 필요성이 높은 정보라고 판단 가능하다. ④항의 경우 흥미를 자극할 만한 요소일 수도 있고, 알아두면 좋은 항목이기는 하지만 학습단계에서 느끼는 중요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⑥, ⑧항의 경우 흥미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현지에서의 생활 및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보기 어렵고, ⑦의 경우 현지에서 신발을 구매할 확률이 낮기도 하겠지만, 신어보면 될 것이기 때문에 해당 요소를 반드시 학습해야 할 항목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표7> 문화교수항목 5 부분 : 먹거리

	(5) 먹거리	A	B	등급
①	중국의 식사는 요리가 기본임(밥이 기본이 아니다).	○	○	上
②	식사 시 밥과 국은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	○	○	上
③	음식의 주문은 보통 인원의 1.5~2배의 가지 수를 한다.	○		中
④	식사 시 대부분 술, 음료 곁들임, 맥주는 점심때도 많이 마심.	○		中
⑤	술의 기원과 종류	○		下
⑥	중국의 음식(4대요리)	○		下
⑦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중국음식 베스트	○		上
⑧	중국은 아침이면 도처에 아침식사를 파는 곳이 있으며, 죽이나 지엔빙(煎饼) 요우티아오(油条) 만두 등 아침 전용 메뉴가 있음.	○		中
⑨	중국에서는 버블티나 냉홍차 냉녹차 등이 많이 판다.	○	○	中
⑩	지역별 명차 또는 차의 종류	○		下
⑪	평소 커다란 찻 병을 들고 다니며 수시로 차를 마시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뜨거운 물이 공급하는 장소가 있음	○	○	中
⑫	중국은 저녁을 일찍 먹는 편, 저녁식사약속을 4시 반, 5시에 하기도 함. 너무 늦은 시간에 저녁약속을 잡는 것은 실례가 될 수도 있음.	○	○	中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총 12개의 문화정보가 직접 제공되었거나 제공 가능한 것으로 탐색되었는데, 그중 ①, ②항은 여행으로의 방문인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상황이어서 필수 정보라 할 수 있으며, ③, ④, ⑧, ⑨, ⑪, ⑫의 경우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거나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있는 정보이기에 여학교육에서 소개할 만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다만 ⑤, ⑥, ⑩항의 경우, 해당 문화정보를 알고 있다면 지식수준이 상당하다는 인상을 줄 수는 있겠으나 일상생활이나 소통에 있어 장애가 발생할 만한 요소라 할 수는 없다. 특히 모든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중국의 4대 음식의 특징은 매우 흥미로운 요소일수는 있겠지만, 지역별 음식의 보편적 특징보다는 ⑦항의 경우처럼 우리의 입맛에 맞는 음식들이 무엇인지 소개해 주는 것이 보다 유용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표8> 문화교수항목 6 부분 : 교통·통신

	(6) 교통·통신	A	B	등급
①	중국의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은 자전거이다.	○	○	上
②	자전거 전용도로나 주차장, 자전거용 신호등, 좌회전 시 자전거용 대기선, 계단 옆에 자전거 이동통로 등이 있다.	○		中
③	자전거 번호판, 전용 비옷 등 특이한 자전거 용품이 발달되어 있음.	○		中
④	중국에는 그밖에도 대중교통으로 삼륜차 등이 있는 곳도 있음.	○		中
⑤	중국의 기차 (高铁, 动车, 特快, 快客, 直快, 普客, 游 /硬坐, 软坐, 硬卧, 软卧)	○		下
⑥	중국에서는 기차나 고속버스를 탈 때도 짐 검사를 함.	○		中
⑦	중국의 휴대폰은 선불제로 사용한다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	○	○	下
⑧	중국의 휴대폰은 지역을 벗어나서 사용할 경우 시외 요금이 적용되어 비용이 비싸진다는 점도 우리와 다르다	○		下
⑨	중국의 휴대폰은 수신자도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예외도 있음)	○		中
⑩	지역이 넓어서 기차에 침대칸이 있고, 장거리 버스 중에도 침대버스가 있으며, 버스 안에 화장실이 있기도 하다.	○		中

교통·통신과 관련해서는 총 10개의 문화정보가 직접 제공되었거나 제공 가능한 것으로 탐색되었는데, 그중 ①항은 중국인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항목이고 중국의 큰 특징 중 하나이기에 어학수업에서도 제공할만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②, ③, ④항 역시 중국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요소로 학습할 만한 요소라 할 수 있으며, 흥미를 자극할 만한 요소로도 판단 가능하다. 또한 ⑨항의 경우 우리와 다른 요소일 뿐 아니라 특별한 용무 없이 전화를 하는 것이 실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소개할 만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한편 ⑥, ⑩항은 우리와 다른 부분이라는 하지만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항목은 아니기에 학습필요성이 높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그밖에 ⑤, ⑦, ⑧항의 정보는 생활형 정보이긴 하지만 어학강좌에서 시간을 할애하여 소개할 만한 항목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교통 통신과 관련된 정보도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설명을 할 때 바뀐 부분을 함께 언급할 필요가 있다.

<표9> 문화교수항목 7 부분 : 숫자 및 금기

	(7) 숫자 및 금기	A	B	등급
①	8을 매우 좋아함. 올림픽도 8월8일 오후8시 8분에 개막했을 정도임,	○	○	上
②	중국에서 6, 9 등도 길한 의미. 날을 잡거나 번호를 만들 때 많이 활용.	○	○	中
③	중국에서 4는 불길한 의미; 4층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음.	○	○	中
④	중국에서 7은 우리와 달리 행운의 의미가 없음.	○	○	上
⑤	중국에서 방문 시 선물하지 말아야 할 것들: 시계, 우산, 배 등)	○	○	上
⑥	축의금이나 상여금 등을 흰 봉투에 담아 주면 안 된다.	○		中
⑦	축의금은 짝수로, 조의금은 홀수로 .	○		中

숫자 및 금기와 관련해서는 총 7개의 문화정보가 직접 제공되었거나 제공 가능한 것으로

탐색되었는데, 대부분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흥미를 자극하는 요소도 갖추고 있어서 어학수업에서 소개할 만한 내용이라 하겠다. 다만 ②항의 6, 9가 길한 숫자라는 것은 우리와 다르다고는 하지만 소통에 장애가 되는 수준은 아니며, ③항의 경우 4가 불길한 숫자라는 점은 우리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학습요소로 보기는 어렵지만, 4층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는 등 일상생활에서 차이가 있기에 학습할만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⑥, ⑦항은 우리와 다른 문화이기에 학습할만한 요소이지만 초급 단계의 학습자가 해당상황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학습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5. 나오는 글

이상 국내에 소개된 5대 출판사의 대표교재에서의 문화정보 소개 현황 및 본문 구성을 참고하여 총 80개의 문화정보를 정리하였고, 이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내용만 선별하여 다시 73개 문화항목으로 정리한 후 ‘중국문화와 자국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및 ‘의사소통 장애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어학교육에서의 학습 중요도를 판단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매우 필요한 학습요목 25개와 비교적 학습이 필요한 항목 30개를 추출하여 총 55개의 항목을 입문과정 어학강좌 문화교수목록으로 정리해 보았다.

어학강좌에서 문화교육의 중요성은 많은 교사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는 않고 있다. 또한 적지 않은 연구에서 어학강좌에서의 문화교육을 논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화정보가 교수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문화교수의 중요성을 인지한 제 2외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에서 제시한 문화교수항목²²⁾을 항목을 보면 ‘문화’가 포괄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다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상 문화 전문 강좌라 하더라도 그 모든 항목을 다 교수할 수 없음을 생각할 때 이 같은 교수항목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인 교수현황이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어학강좌에서의 문화정보 소개는 시간 제약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학강좌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교수하고 있는 어학 지식과 관련 있는 필수 정보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교사들이 어학교육에서 어떤 문화요소를 소개해야 할지에 대한 교수목록의 부재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글은 입문과정 중국어 교육에서의 문화교수목록 구축을 위해 국내 출판된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점검이라는 접근방법을 취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각 문화요소의 학습 필요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 본 연구자들의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고 이것이 다른 연구자들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교수목록을 개별 연구자가 한순간에 구축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가 어학강좌에서의 체계적인 문화교육이 부재한 현 시점에서 어떻게 문화교수목록을 구축

22) 중국개관: 국기, 언어, 소수민족, 인구, 행정구역 / 언어문화: 인사, 호칭, 숫자, 해음 등 / 생활문화: 여행, 운동, 가족, 하루일과, 학교생활, 건강, 취미, 교통수단, 식사 등 / 예술문화: 경극, 음악, 영화, 문학 등 / 전통문화: 명절, 전통적인 의식주, 전통놀이, 전통공예 등 / 기타: 인문, 지리, 자연 등.

하여 어학교육에 접목 시킬 것인가에 대해 연구자들의 고뇌를 촉발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현재 입문과정 교재들의 어학적 정보는 대체로 일치하지만, 소개하고 있는 문화요소는 전혀 일치하고 있지 않으며 너무나도 제각각인데다 시의적절하지 못한 정보가 그대로 수록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문화요소와 관련하여 교수목록이 구축되고 어학 교재 편찬에 있어서도 이를 바탕으로 집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 디지털 교재의 발전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문화정보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 주었다. 물론 교재 편찬에서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어 적절한 문화정보가 수록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교실수업에서 문화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문화교수목록이 구축되고 교재에서의 소개가 통일성을 갖는다면 어학강좌에서 문화교수가 자리 잡아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문화 통합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된 시점에서 본 연구의 탐색이 어학강좌에서의 문화교수 목록 마련에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운옥, 『중국문화 오디세이』, 차이나하우스, 2009.
- 공상철 외 4인, 『중국 중국인 그리고 중국문화』, 다락원, 2001.
- 김상균·신동윤, 『사진으로 보는 중국문화』, 동양북스, 2017.
- 김태만 외 3인, 『쉽게 이해하는 중국문화』, 다락원, 2011.
- 류기수, 『외국어로서의 중국어교육』, 한신대학교출판부, 2014.
- 李載勝, 「現代漢語 속의 呼稱使用에 관한 小考」, 『중국어문론집』, 제9집, 1994.
- 문정혜,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제고를 위한 중국문화교육一考」, 『중국과 중국학』, 제30호, 2017.
- 박경자·장복명, 『언어교수학』, 박영사, 2011.
- 박찬욱, 「중국어 말하기수업에서의 문화교육이 지향할 점에 대하여」, 『인문학논총』, 36, 2014.
- 백경숙, 「한국의 대학 영어교육과의 문화 관련 교과목 분석을 통한 제언」, 『사회언어학』, 20(2), 2012.
- 송지현, 「중국어 문화소통능력 제고를 위한 제언 - 호칭과 인사법을 중심으로」, 『中國學』, 제60집, 2017.
- 오길용, 「중국어교육과 문화교육의 병행에 대한 연구 - 대학 교양중국어를 중심으로」, 『중국언어연구』, 제15집, 2002.
- 이봉지, 「멀티미디어를 사용한 목표 문화 교육」, 『Foreign Languages Education』, 8(1), 2001.
- 임재민, 「언어와 문화 통합교육에 대한 예비 중국어 교사의 인식 연구」, 『중국언어연구』, 제68집, 2017.
- 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정신문화연구원, 1991.
- 정유선, 「문화교육의 관점에서 본 고등학교 중국어 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비교문화연구』, 제13권 제2호, 2009.
- 조미연, 「중국어교육에서의 문화 활용 방안에 관한 고찰」, 『중국어문논역총간』, 제21집, 2007.
- 중국문화연구회, 『중국문화의 즐거움』, 차이나하우스, 2006.
- 최금실·오현주, 「한중 수교 20년간의 국내 중국어 문화교육 연구동향」, 『언어학연구』, Vol.18 No.2, 2013.
- 孔子学院总部·国家汉办, 『国际汉语教学通用课程大纲(修订版)』, 北京语言大学出版社, 2014.
- 张占一, 「汉语个别教学及其教材」, 『语言教学与研究』, 第3期, 1984.
- _____, 「交际文化谈」, 『语言教学与研究』, 第4期, 1992.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语言教学, 汉语文化教学, 日常生活文化, 交流文化, 交流障碍		
	영문	Chinese Language Education, Chinese Culture Education, Daily Life Culture, Communication Culture, Communication Disorder		
<div>At the Education of the Chinese Culture Education in Language Courses</div> <div>Han, Hee-Chang / Lee, So-Hyun</div> <p>Language and culture have close ties to each other. When it comes to the second language learning, the understanding of the language not only includes but also requires a considerable understanding of the culture.</p> <p>Today, the importance of the integrated teaching of language and culture has been highlighted and many Chinese language teachers have recognized that appropriate cultural teaching in language courses is necessary. However, the culture education in language class is fully depended on the will and ability of teachers.</p> <p>To build a list of cultural education elements in the introductory language course, I will look at the cultural elements that are directly recorded or that have potential for indirect introduction by examining the representative textbooks of the five major publishing companies. Based on this, I try to construct cultural teaching items which are necessary for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linguistic course.</p> <p>To do this, in this research, I classify the culture into knowledge culture, daily life culture, and communication culture and explore the contents of those cultures. The knowledge culture is not related to the daily life of modern people, the daily life culture is related to daily life and the communication culture is likely to cause obstacles to communication in the use of language. At the same time, I try to design a list of basic cultural education elements by exploring the necessity of learning after checking "the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Chinese culture" and "the possibility of communication disorder".</p>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한희창 / 韓希昌 / Han, Hee-Chang		이소현 / 李昭炫 / Lee, So-Hyun
	소 속	한양대학교 에리카 국제문화대학 중국학과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강사
	Em@il	lizi2002@naver.com		zhenniao@naver.com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9년 08월 21일		심 사 일 2019년 08월 26일
	수 정 일	2019년 09월 09일		게재확정일 2019년 09월 17일